

텔레소매틱

- 끊어지지 않는 전체성(1부)

| 래리 도시 | 안성윤 옮김 |

인간의식이 뇌를 넘어 비국소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개별 유기체라는 개념은 유기체의 경계만큼이나 매우 추상적이다. 우리 문명이 비록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는 하나,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전체성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¹

— 데이비드 보hm David Bohm, 바실 하일리리 Basil J. Hiley,

『나뉘지지 않은 우주 The Undivided Universe』

“갑자기 뒤통수가 심하게 아팠어요.” 간호사가 울먹이며 말했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겠길래 조퇴를 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전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눕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동생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뒤통수에, 제가 끔찍한 통증을 느꼈던 바로 그 부위에요. 총을 맞은 시간도 제가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던 그때였어요.”

이 여성은 북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유명한 병원의 간호사였다. 이 일은 내가 그녀의 병원 컨소시엄에서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한 스피치가 끝난 후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 일어났다. 스피치 주제는 치료와 간호에 있어 공감과 연민의 중요성이었다. 나는 공감과 연민이 단지 우리 몸속 쇠골 위 어디선가 떠돌아다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공감과 연민이 우리의 생물학적 구조라고 말했다. 공감과 연민은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침상 곁에 있을 때처럼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나지만, 증거에 의하면 각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공감과 연민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 기분, 느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두고

텔레소매틱 이벤트telesomatic events라고 한다고 나는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는 옛날부터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무시되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간호사도 수백 명의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밝히게 되었다. “이제야 저와 동생 사이에서 일어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녀는 말했다. “이제 터놓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는 청중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있었다.

유대감의 단계

뉴런에서 뉴런으로

2009년, 신경과학자 리타 피지Rita Pizzi가 이끈 이탈리아 연구팀은 인간의 뉴런 다발을 레이저빔으로 자극했을 때, 철저히 상호 차폐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뉴런 다발도 비슷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다.² (표1 참조)

뇌에서 뇌로

1965년, 듀에인T.D. Duane과 토마스 베렌트Thomas Behrendt는 일란성 쌍둥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기분과 신체적 느낌을 공유한다는 아직 입증되지 않는 보고들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테스트를 한 15쌍 중 2쌍의 쌍둥이들은, 한 쌍둥이가 눈을 감자 그의 뇌에서 알파파가 나왔고, 동시에 다른 밝은 곳에서 눈을 뜨고 있던 다른 쌍둥이의 뇌에서도 알파파가 나왔다.³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이 연구는 큰 관심을 끌어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여덟 개의 연구 그룹이 10번의 재현 연구를 시도하였다. 10

건 가운데 8건에서 긍정적인 발견이 보고되었고, <네이처>지와 <행동 신경학Behavioral Neuroscience>과 주류 저널에 기재되었다.⁴⁻¹³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정신생리학자 그린버그-질버바움Jacobo Grinberg-Zylberbaum이 이끈 멕시코 대학 연구팀은, 이전의 많은 연구들처럼, 감각적인 접촉이 없이 서로 떨어져 있는 한 쌍의 사람들에서 뇌전도EEG의 연관성을 입증했다.¹⁴⁻¹⁶ 두 연구는 유명한 <물리학 에세이Physics Essays>와 <국제신경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Neuroscience>에 실리면서 더 많은 주목을 끌었다.¹⁷⁻¹⁹ 이 분야의 실험들은 갈수록 정교해졌다. 2003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뇌전도 전문가인 지리 바커만Jiri Wackerman은 예전 실험들의 결점들을 보완하고, 더 나은 분석법을 적용했다.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친 후 그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상은 방법론적 실패 또는 기술적인 인공물이라 일축할 수도 없고 자연적인 현상이라 볼 수도 없다. 현재까지는 어떤 생물물리학적 메커니즘으로도, 떨어져 있는 두 피험자의 뇌전도에서 상호연관성이 관찰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²⁰라고 결론 내렸다.

fMRI 뇌스캔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애틀 바스티어 대학교Bastyr University의 심리학자 레아나스탠디쉬Leanna Standish는 방 안에서 한 사람이 깜빡거리는 불빛에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멀리 떨어진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의 뇌 활성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¹⁹ 2004년에는 개별적으로 실시된 재현 실험 3건이 보고되었는데, 모두 성공적이었다. (바스티어 대학의 스탠디쉬 연구팀¹⁸, 에딘버러 대학²¹, 노에틱 사이언스 연구소Institute of Noetic Sciences의 연구원 딘 래딘Dean Radin과 그의 동료들²²)

사람에서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최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 캠퍼스의 정치학자인 제임스 포올러 James H. Fowler와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의사이자 사회과학자인 니콜라스 A. 크리스타키스 Nicholas A. Christakis는 2008년, 〈영국 메디컬 저널 British Medical Journal〉에 ‘거대 소셜 네트워크에서 역동적으로 퍼져 나가는 행복감 Dynamic Spread of Happ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이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를 발표했다.²³ 크리스타키스는 “행복감은 생각 이상으로 전염성이 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의 선택과 행동 뿐 아니라,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도 달려있다… 감정은 집단적이다. 그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다”²⁴라고 했다.

1983년부터 2003년까지 포올러와 크리스타키스는 유명한 프레밍험 심장연구에 참여한 4,739명과 배우자, 친척, 친한 친구, 이웃, 동료처럼 서로 가까운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 포올러는 “당신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그것은 당신의 주머니에 500만원이 들어있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당신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감정적 상태가 당신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주류 언론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것처럼 “감정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다.”²⁵

퍼져나가는 것은 행복 뿐만 아니다. 연구팀은 우울함, 슬픔, 비만, 음주와 흡연 습관, 병, 투표 성향, 음악 또는 음식 취향,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선호,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 등 또한 전염성이 있음을 발견

했다. 26,27

표 1. 비국소적 커뮤니케이션의 간단한 분류

비국소적 커뮤니케이션의 레벨	비국소적 커뮤니케이션의 징후	중대성
뉴런에서 뉴런으로	뇌 뉴런의 한 그룹을 자극했을 때 그 자극으로 인한 변화가, 모든 자극으로부터 차단된 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뉴런에서도 관찰된다.	기존 과학에 따르면, 상호 차단된 채 떨어져 있는 뉴런 다발 간의 비국소적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뉴런들은 통합된 하나의 개체처럼 행동한다. 비국소적 형태의 통합과 연결성이 시사된다.
뇌에서 뇌로	한 사람의 뇌가 자극받았을 때, 그 자극으로 인한 변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뇌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EEG나 MRI 뇌스캔으로 확인됐다.	이런 일은 기존 과학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비국소적 형태의 통합과 연결성이 시사된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텔레파시, 원격투시, 텔레스매틱 이벤트, 원격치료, 소셜 네트워크 현상	비국소적 형태의 연결과 통합을 시사한다. 하나임(Oneness)이 단지 은유적 표현이 아닌 경험적 사실을 뜻한다.

크리스타키스와 포올러는 큰 소셜 네트워크 내에서 비만 확산에 관한 발견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었다. 당신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만이 당신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생리적 또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제시하지 않은 채 비만의 전염성을 “소셜 네트워크 현상”으로 돌렸다.²⁸ 하지만 무언가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그저 “소셜 네트워크 현상”이라 부른다는 것은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기사 논평을 보면, 참여한 전문가들도 똑같은 식이었다. 그들은 과제중에 기여할 수 있는 세포들 사이의 연관성과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역시 감각적 접촉이 불가능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직접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세포인 거울뉴런의 활동을 통해서 감정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보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울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자극도 없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 몸짓, 자세, 말투를 따라하듯이, 흥내를 통해 확산된다고 제시한다. 이런 시도에서는, 과연 무엇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간에 변화를 중재하는지, 어떤 은밀한 물리적 요인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결국엔 포울러와 크리스타키스는²⁹ 행복, 비만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당신 친구의 친구의 친구, 즉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가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의료 파수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분야는 유물론적 의학의 심장부에서 터질 폭탄일 수도 있다. 일부 의학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가령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비국소적 통합 의식 같은 것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뉴욕 스톤이 브룩 대학교 가정의학과 임상부교수인 보브로우 박사Dr. Robert S. Bobrow다. 2011년 <익스플로어>에 실린 비만의 확산을 다룬 기사 ‘집단의식의 증거Evidence for a Communal Consciousness’에서 그는 “솔직히 말해서,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상호작용 없이 사회적 연결에서 발달하는 비만은 감정적 텔레파시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³⁰

어떤가. 실로 놀랍지 않은가. 이들 실험은 인간의 고립이 신화에 불과하며, 인간 의식이 뇌를 넘어선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며 얽혀 있다.

텔레소매틱 이벤트

연구자들의 호들갑 속에서, 앞서 언급한 간호사의 경험 같은 사례는 수백 건 가까이 그저 잊혀지고 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느낌이나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미국의 신경정신의학자 슈워츠Berthold E. Schwarz는 그런 사례를 다수 기록으로 남겼다. 1960년대, 그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어로 ‘멀리 있는 몸’을 뜻하는 텔레소매틱telesomatic이란 용어를 만들었다.³¹ 그 현상이 마음을 공유해서 두 몸이 연결을 뜻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례들이 묻혀버리고 있다. 그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인정된 메커니즘이 없고, 그 현상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사회적 오명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 비평가 존 러스킨John Ruskin(1819-1900)이 대표적인 예를 설명했다. 유명한 풍경화가이자 러스킨의 사촌인 조안과 결혼한 아서 세번Arthur Severn의 일이다. 어느 날 세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 조안이 자고 있을 때, 가까운 호수에 배를 타러 나갔다. 그런데 자고 있던 조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입에 엄청난 통증을 느껴서 잠에서 깬다. 그녀가 일어나고 나서 잠시 후, 아서가 피가 흐르는 입을 옷깃으로 틀어막으면서 들어왔다. 돌풍이 불어 붐(boom, 돛의 아래 활대)에 맞아서 배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했다. 조안이 입에서 통증을 느낀 시각, 아서가 붐에 맞았던 것이었다.³²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더글라스 스톡스Douglas Stokes가 2002년 비슷한 예를 발표했다. 그가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 중 하나가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벤치에서 쉬다가 갑자기 턱에 큰 고통을 느끼며 떨어졌다고 했다. 5분 뒤, 그의 아버지는 근처 피트니스 센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운동을 하다가 피트니스 기구에 맞아서 턱이 부러졌다는 것이었다.

세번 가족의 또 다른 일화는 더 불행하다. 하루는 조안 세번이 어머니, 고모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다. 양 손으로 귀를 막고 “물이 귓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내 동생이나 아들 제임스가 물에 빠져 죽고 있어”라고 소리쳤다. 조안은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수영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삼촌이 창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다. 제임스가 정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³³

의식 분석가이자 영국에 있는 국제단체인 사이언티픽 메디컬 네트워크Scientific and Medical Network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로리머David Lorimer는 많은 텔레소매틱 사례들을 그의 책 『Whole in One』에 담았다.³⁴ 로리머는 이 일들이 주로 감정적으로 서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시공간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상호 공명”을 주장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의학자였던 고故 이안 스티븐슨Ian Stevenson(1918~2007)은 서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비슷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사례 수십 건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이 부모님과 아이들, 부부, 형제, 쌍둥이, 연인, 친밀한 친구들이었다.³⁵ 여기서 공통된 맥락은 서로 떨어진 사람들 사이의 감정적 친밀함과 공감이었다.

스티븐슨이 조사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최근 대학에 진학하면서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딸에게 엄마가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오른손이 강하게 타오르는 느낌을 받아서 펜을 내려놓았다. 얼마 후, 전화가 왔는데 딸이 실험을 하다가 산acid 때문에 오른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정확하게 손에 통증을 느낀 그 시각이었다.³⁶

연구원 루이자 라인Louisa E. Rhine이 보고한 사례에서는 한 여자가

갑자기 몸을 움크리고 가슴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며 움켜쥐면서 “넬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녀가 다쳤어요.”라고 말했다. 2시간 뒤, 경찰이 그녀에게 딸 넬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동차 핸들 조각이 그녀의 가슴을 관통했다고 알렸다고 한다.³⁷

쌍둥이 커넥션

당신이 우연에 매달리지 않고 이 작은 일을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한 세계를 부숴버릴 것이다.³⁸

— 프리스틀리 J. B. Priestley, 『인간과 시간 Man And Time』

가이 리온 플레이페어 Guy Lyon Playfair는 영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의식 연구가 가운데 한 명이며 『쌍둥이 텔레파시 Twin Telepathy』의 저자다.³⁹ 그는 쌍둥이들과 형제 남매들의 텔레소매틱 사례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한 예는 영국에 기네스북의 편집자로 잘 알려진 일란성 쌍둥이 로스와 노리스 맥휘터의 일이다. 1975년 11월 27일, 로스는 북런던 자택 앞에서 괴한에게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그의 쌍둥이 형제 노리스에 의하면, 로스가 총을 맞은 시각, 자신도 마치 총을 맞은 것처럼 느꼈다고 한다.⁴⁰

회의론자들은 언제나 이런 사례들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많은 예들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플레이페어가 보고한 한 예는 스페인의 무리요 데 리오 레자 Murillo de Rio Leza 마을에 살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인 실비아 Silvia와 마르타 란다 Marta Landa의 일이다. 란다 쌍둥이는 1976년 기괴한 일을 겪었고 그 일이 신문에 실리면서 유


명해졌다. 마르타는 다리미에 손에 화상을 입었다. 빨갛고 큰 물집이 생기면서, 그 시각 할아버지댁에 있던 실비아의 손에도 똑같은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비아는 마르타에게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른 채 병원에 갔다. 두 쌍둥이가 만났을 때 그들의 부모는 마르타, 실비아의 손에 똑같은 크기의 물집을 봤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쌍둥이 중 하나가 사고를 당하면 다른 명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일을 안다. 마르타가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곧바로 안으로 달려갔지만 갑자기 발을 움직일 수 없다고 소리쳤다. 그때 실비아는 차 안전벨트에 발이 엉켜있었다. 또 다른 경우에서, 한 명이 말썽을 부려 맞았을 때, 다른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스페인 초심리학 협회 마드리드 지부의 멤버들은 쌍둥이의 화상 사례를 듣고 그 일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심리학자와 의사들로 이루어진 아홉 명의 팀은 쌍둥이 부모의 협조 동의를 받고 집을 방문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쌍둥이들에게 작은 해프닝이 생겼다. 마르타가 어떤 것에 머리를 부딪쳤을 때, 쌍둥이인 실비아가 울기 시작했다. 멤버들은 쌍둥이에게 게임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쌍둥이들은 자신들이 실험대상이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마르타는 엄마와 몇 명의 연구원들과 같이 1층에 있고, 실비아는 아빠, 그리고 나머지 연구원들과 함께 2층으로 갔다. 양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록되었다. 한 연구원이 마르타와 함께 손가락 인형을 가지고 게임을 하였다. 실비아 또한 똑같은 인형이 주어졌으나 게임을 하지 않았다. 마르타는 인형을 잡고 그것을 연구원에게 던졌다. 위층에 있는 실비아도 똑같은 시각,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

함께 있던 의사가 신체검사의 일환으로 마르타의 왼쪽 눈에 밝은 빛

을 비추었다. 네 번 정도 비추었을 때, 실비아는 빛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눈을 빠르게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무릎반사 테스트를 하면서 3번 무릎을 두드렸다. 똑같은 시간, 실비아는 마치 드라마처럼 똑같이 무릎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빠는 밑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실비아의 무릎을 붙잡았다. 그 다음, 마르타에게 아로마향 향수냄새를 맡게 했다. 냄새를 맡자, 실비아는 머리를 흔들며 손을 코에 갖다댔다. 각각 1층과 2층에 여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쌍둥이는 일곱 색깔의 원판을 가지고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일을 했다. 둘은 정확하게 똑같은 순서대로 원판들을 배열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Unbroken Wholeness : The Emerging View of Human Interconnection』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래리 도시** | Larry Dossey, MD | <익스플로어Explore>지 편집장

역자 | **안성윤** | <지금여기> 번역위원. 미국 위스콘신 주 노틀담고등학교 수료. 미국검정고시 통과. 일본 조치대학 국제교양학부 재학.

참고문헌

1. Bohm D, Hiley BJ. The Undivided Universe. Reprint ed, London : Routledge: 1995;389.
2. Pizzi R, Fantasia A, Gelain F, Rossetti D, Vescovi A. Non-local correlations between separated neural networks, SPIE Digital Library. Available at : <http://faculty.nps.edu/baer/CompMod-phys/PizziWebPage/pizzi.pdf>. Accessed November 8, 2012.
3. Duane TD, Behrendt T. Extrasensory electroencephalographic induction between identical twins. Science. 1965;150:367.
4. Hearne K. Visually evoked responses and ESP. J Soc Psychical Res. 1977;49:648-657.
5. Hearne K. Visually evoked responses and ESP: failure to replicate previous findings. J Soc Psychical Res. 1981;51:145-147.

6. Kelly EF, Lenz J. EEG changes correlated with a remote stroboscopic stimulus: A preliminary study. In : Morris J, Roll W, Morris R, eds, *Research in Parapsychology 1975*.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5, p. 58-63 (abstracted in: *J Parapsychol*, 1975;39:25).
7. Lloyd DH. Objective events in the brain correlating with psychic phenomena. *New Horiz*, 1973;1:69-75.
8. May EC, Targ R, Puthoff HE. EEG correlates to remote light, ashes under conditions of sensory shielding. In: Tart C, Puthoff HE, Targ R, eds, *Mind at Large: IEEE Symposia on the Nature of Extrasensory Perception*, Charlottesville, VA : Hampton, Roads Publishing Company; 1979, p. 112122
9. Millar B. An attempted validation of the "Lloyd effect," In : Morris JD, Roll WG, Morris RL, eds, *Research in Parapsychology 1975*,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5, p. 25-27.
10. Millay J. *Multidimensional Mind : Remote Viewing in Hyperspace*. Berkeley, CA: North Atlantic Books; 2000.
11. Orme-Johnson D, Dillbeck MC, Wallace RK. Intersubject EEG coherence: is consciousness a field? *Int J Neurosci*, 1982;16:203-209.
12. Rebert CS, Turner A. EEG spectrum analysis techniques applied to the problem of psi phenomena, *Behav Neuropsychiatry*, 1974;6:18-24.
13. Targ R, Puthoff H, Crumpton MJ. Information transmission under conditions of sensory shielding. *Nature*, 1974;252:602-607.
14. Grinberg-Zylberbaum J, Ramos J. Patterns of interhemispheric correlation during human communication. *Int J Neurosci*, 1987; 36:41-53.
15. Grinberg-Zylberbaum J, Delatorre M, Attie L. The Einstein-Podolsky-Rosen paradox in the brain : the transferred potential, *Phys Es-says*, 1994;7: 422-428.
16. Grinberg-Zylberbaum J, Delatorre M, Sanchez ME, Guevara MA. Human communication and the electro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brain. *Subtle Energies Energy Med*, 1993;3:25-43.
17. Sabell A, Clarke C, Fenwick P. Inter-subject EEG correlations at a distance, the transferred potential. *Proceedings of the 44th Annual Convention of the Para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Para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p. 419-422.
18. Standish LJ, Kozak L, Johnson LC, Richards T. Electroencephalographic evidence of correlated event-related signals between the brains of spatially and sensory isolated human subjects. *J Altern Complement Med*, 2004;10:307-314.
19. Standish L, Johnson LC, Richards T, Kozak L. Evidence of correlated functional MRI signals between distant human brains. *Altern Ther Health Med*, 2003;9:122-128.
20. Wackermann J, Seiter C, Keibel H, Walach H. Correlations between brain electrical activities of two spatially separated human subjects. *Neurosci Lett*, 2003;336:60-64.
21. Kittenis M, Caryl P, Stevens P. Distant psychophysiologica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related and unrelated participants. *Proceedings of the 47th Annual*

- Convention of the Parapsychological Association, Vienna: Parapsychological Association; 2004, p. 67-76.
22. Radin DI. Event-related electroencephalographic correlations between isolated human subjects, *J Altern Complement Med*, 2004;10:315-323.
 23. Fowler JH, Christakis NA, Dynamic spread of happ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 longitudinal analysis over 20 years in the Framingham heart study, *BMJ*, 2008;337:a2338.
 24. Belluck P, Strangers may cheer you up, study shows, *New York Times online*. Available at : <http://www.nytimes.com/2008/12/05/health/05happy-web.html>. Accessed December 4, 2008.
 25. Stein R. Happiness can spread among people like a contagion, study indicates, *Washington Post online*. Available at :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story/2008/12/04/ST2008120403608.html>. Accessed December 5, 2009.
 26. Bond M, Three degrees of contagion, *New Sci*, 2009;201:24-27.
 27. ChristakisNA, FowlerJH, Connected: the Surprising Power of Our Social Networks and How They Shape Our Lives. Boston, MA : Little, Brown and Company; 2009.
 28. Christakis NA, Fowler JH, The spread of obesity in a large social network over 32 years, *N Engl J Med*, 2007;357:370-379.
 29. Kaplan K, Happiness is contagious, research finds, *Los Angeles Times online*. Available at : <http://articles.latimes.com/2008/dec/05/science/sci-happy5>. Accessed December 5, 2008.
 30. Bobrow RS. Evidence for a communal consciousness, *Explore (NY)*, 2011;7:246-248.
 31. Schwarz BE. Possible teleomatic reactions, *J Med Soc N J*, 1967;64 : 600-603.
 32. Gurney E, Myers FWH, Podmore F. *Phantasms of the Living*. Volume 1. London: Trubner; 1886, p. 188-189.
 33. Gurney E, Myers FWH, Podmore F. *Phantasms of the Living*. Volume 2. London: Trubner; 1886, p. 132.
 34. Lorimer D. *Whole in One*. London: Arkana/Penguin; p.72-105.
 35. Stevenson I, *Telepathic Impressions : A Review of 35 New Cases*. Charlottesville, VA :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70.
 36. Rush JH, *New directions in parapsychological research*, *Parapsychological Monographs No. 4*, New York: Parapsychological Foundation; 1964, p. 18-19.
 37. Rhine LE. Psychological processes in ESP experiences, Part I, Waking experiences, *J Parapsychol*, 1962;29:88-111.
 38. Priestley JB. *Man & Time*. London, UK: W.H. Allen; 1978. p. 211-212.
 39. Playfair GL, *Twin Telepathy : the Psychic Connection*, London, UK: Vega; 2002.
 40. Playfair GL, *Twin Telepathy : the Psychic Connection*, London, UK: Vega; 2002, p.12.